

보도시점 2025. 1. 14.(화) 14:00 배포 2025. 1. 14.(화) 08:30

특허청-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 기술 경쟁력 확보한다

- 특허청, 양자 기술 선도기관과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 14.(화) 14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대전 유성구)을 방문하여 한국의 양자 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024년에 20큐비트*의 양자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양자 기술 선도기관으로서, 119건의 양자 기술 특허를 출원하였다.

* 큐비트: 양자 컴퓨터에서 자료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

양자 기술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로서 최근 10년간('13년~'22년) 한국의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32%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주요국(IP5) 특허청에 출원된 한국의 양자 분야 특허출원: '13년 15건 → '22년 186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빠르게 발전하는 양자 기술의 최신 현황과 특허동향 분석결과를 공유하였으며, 한국이 양자 기술 분야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특허전략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21년~'24년)*과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24년)**을 통해 지식재산의 활용과 전략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 대학·공공연구가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수익의 일부를 다른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에 재투자 하도록 하여 자립형 선순환 환경 조성

** 정부 R&D 특허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대학·공공연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분석·진단하여 활용(기술이전·사업화) 및 처분(유지 또는 포기) 전략 제시

김완기 특허청장은 “양자 기술은 미래 대한민국 성장의 게임체인저로서, 전략적인 지식재산권 선점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특허청은 연구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양자 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특허청-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간담회 개요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디지털융합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책임자	과 장	전범재 (042-481-5782)
		담당자	서기관	하정훈 (024-481-5606)
			사무관	임민섭 (042-481-8216)

□ 간담회 개요

- (일시) '25. 1. 14.(화), 14:00 ~ 15:30 (1시간 30분)
- (장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이호성)* (대전 유성구 소재)
 - * 1975년 설립(498명, '24년),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 목적
- (목적) 양자 기술·특허 동향 공유, 양자컴퓨터·양자센서 연구시설 방문 및 지식재산 관련 현장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수립에 반영

〈 참고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 분야 주요 성과 〉

- 국산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24년) ※'26년까지 50큐비트 개발 목표
-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총괄 기관으로 선정('24년)
- 양자 기술 관련 특허 출원 119건(~'24년)

< 주요 특허 >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10-2459885	'24.10.24.	서브켈빈 순환식 저온유지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저온유지방법
10-2565160	'23.08.04.	다이아몬드 질소-빈자리센서를 이용한 온도측정장치 및 제작방법

□ 주요 참석자

- (특허청) 특허청장, 디지털융합심사국장,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부원장, 양자연구 기술소장, 성과정책본부장, 초전도양자컴퓨팅시스템연구단장